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 건설 산업의 선택

한국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1등 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국건설경영협회 주최로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 건설 산업의 선택'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1등 산업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 패러다임', '초일류 건설 기업', '글로벌 건설 제도' 등 3개 분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이충규



주제 발표

제1 주제: '건설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제2 주제: '초일류 건설 기업이 필요하다'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제3 주제: '글로벌 건설 제도로 가야 한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협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 건설 산업의 선택' 토론회는 학계와 건설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건설경영협회 변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 건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변탁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건설 산업이 더 이상 국내 업체 간의 경쟁에만 의존할 수 없는 글로벌 시장 경쟁이 도래했다"며 "코리안 스탠더드로는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하기 어려우며, 우리의 건설 산업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 동력 확보에

1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프레스센터에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 건설 산업의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 4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 주제로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건설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제2 주제로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의 ‘초일류 건설 기업이 필요하다’, 제3 주제로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글로벌 건설 제도로 가야 한다’가 발표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주제인 건설 기업 경영 패러다임에 대해 건설 경영 패러다임은 “건설 경영의 규칙과 활동 범위를 정해주며, 그에 따른 성공적인 행위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건설업이 당면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기본 틀과 이념에 대한 본질적인 변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 수요는 위축되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고,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경영의 틀로 전환한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신기술 분야와 건설 기술을 융합시키는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6가지 전략 과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기업 가치 및 브랜드 가치의 제고 △동종 및 이종 업체 간 네트워크 강화 △원가 경쟁력 강화 △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교육·훈련 및 HR 시스템의 정비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GS건설 대외정책전략지원위원은 ‘초일류 건설 기업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호 위원은 “우리나라 대형 건설 업체들 대부분이 초일류 건설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초일류 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취약하다”고 전했다. 이상호 위원은 초일류 건설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간 매출액 달성 △산업 내 평균적인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지속 △재무 건전성 확보 △산업 내 혁신 주도 △특정 시장, 상품, 기술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

△사회 책임 경영을 활발히 하는 기업 △산업·지역 사회·국가 경제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과 명성을 갖춘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중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초일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초일류 건설 기업은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척도를 의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 사회 발전 및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초일류 건설 기업의 탄생을 위해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과 같은 여건 조성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대형 건설 업체 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요약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건설 제도’에 관해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건설 제도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발주자의 리더십이 많이 요구된다”고 전하며, “글로벌 건설 제도를 향한 건설 산업 내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며 이에 합당한 행위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켓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고문의 사회로 박민우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부장, 신동우 아주대학교 교수,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 이영남 현대건설 전무, 김선덕 건설전략연구소 소장, 송형진 한국건설경영협회 팀장이 참여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동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품질 혁신이 중심이 돼야 하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인력 자원에 대한 관리와 육성에 힘써야 하며, 세 번째 주제인 글로벌 건설 제도는 정부와 발주자의 혁신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에 위임할 부분은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규제를 개혁해야 하며, 내용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박민우 팀장은 “제도를 만들 때 글로벌 스탠더드의 5가지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